

여론정보에 의한 태도변화: 대학생 내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사회적 지지효과 비교

나 은 영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논문에서는 6주 간격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태도질문지를 사용하여 서울대생 72명을 피험자로 한 실험1과 전북대생 160명을 피험자로 한 실험2를 실시하였다. 두 실험 모두에서 독립변인은 여론정보의 종류(1. 내집단 소수/일반인 소수 찬성, 2. 내집단 다수/일반인 소수 찬성, 3. 내집단 소수/일반인 다수 찬성, 또는 4. 내집단 다수/일반인 다수 찬성)였으며, 주요 종속변인은 사후조사 점수에서 사전조사 점수를 뺀 태도변화량이었다. 그리고 사전조사시 수집한 대학생 내집단의 실제 의견분포(실제 내집단 규범)와 피험자들이 추측한 지각된 내집단 규범 간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무정보 통제조건은 실험2에만 있었다. 그 결과, (1) 단순한 여론정보만으로도 여론정보가 지지하는 쪽으로의 태도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2) 일반인 집단의 사회적 지지보다 대학생 내집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 피험자의 태도변화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두 실험에서 일관성있게 증명되었다. 그러나 (3) 지각된 내집단 규범이 실제 내집단 규범보다 더 극화될 것이라는 자기범주화 이론의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단순히 일반인과 비교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학생 내집단 규범의 지각이 극화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집단 의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외부에서 주어지면 내집단 여론 쪽으로 개인의 의견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을 접한다. 특히 선거철이나 중요한 정책 결정 시기가 되면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매체를 통해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고 듣게 된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알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여론정보의 효과, 즉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관한 정보가 사람들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고자 한다.

여론(public opinion)이란 용어 자체는 심리학적 사회심리학 안에서는 별로 많이 쓰이지 않지만(예외: Price, 1989 등), 그 개념은 분명한 사회심리학적 개념이다.

여기서 “여론”이란 일상적인 용어를 사회심리학의 개념으로 환원시켜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여론의 정의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동일한 사회집단의 성원이 특정 문제에 관하여 갖는 태도”(Doob, 1966), 또는 “특정한 때와 장소에서 인간의 집단이 지니는 판단이나 태도 및 신념”(Powell, 1951), 또는 “사회에 영향을 주고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이 갖는 의견의 총체”(Bryce, 1981) 등으로 정의된다(이순애, 1984에서 간접인용). Noelle-Neumann(1984)은 특정 시기에 지배적이라고 지각된 의견을 “의견의 분위기(climate of opinion)”란 말로 표

현하는데, 이것이 여론의 핵심에 해당한다(Noelle-Neumann, 1984; Shamir, 1995). 본 논문에서는 여론을 특정 시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수의견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여론이 불리하다”는 말을 전통적인 사회심리학 용어로 바꾸어 본다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여론에 편승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말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여론 개념은 사회적 지지와, 그리고 여론에 의한 태도변화는 동조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다. 누가 의견(또는 태도)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더라도 여론정보, 즉 사회적 지지 정보를 좇아 여론과 같은 방향으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비교이론(Festinger, 1954)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능력과 비교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바로 여론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회적 지지가 약하다고 느껴지면, 즉 다른 사람의 일반적인 다수의견이 자신의 것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방향으로의 사회적 압력을 느끼게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하는 의견이 일종의 규범(norm)으로 받아들여져, 규범에서 벗어나는 의견은 규범 쪽으로의 변화 압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동조 실험은 규범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다(예: Asch, 1951). 즉, 앞 사람들의 응답을 직접 들음으로써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각하게 되어 자기도 그 의견 쪽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압력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는 규범에 대한 지각(perception)이 잘못된 경우는 드물다. 규범에 대한 지각은 정확하며, 다만 이 지각된 규범에 따라 동조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행동상의 차이가 문제될 뿐이다. 여론정보를 직접 피험자들에게 주고 여기에

따른 태도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규범을 명확히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동조 실험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론정보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된 퍼센트 정보로 제시할 것이다.

한편, 사회 규범이나 여론을 잘못 지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수무지(pluralistic ignorance) 현상이나 합의오류(false consensus) 현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자는 자신의 의견이 실제로는 다수의견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에 속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후자는 자신의 의견이 실제로는 소수의견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에 속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cf. Miller & McFarland, 1991; Prentice & Miller, 1993; Ross, 1977; Schanck, 1932). 이 두 가지 현상은 규범을 지각하는 것(즉, 규범에 대한 지각)을 종속변인으로 본 현상이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규범(여론정보)을 명시적으로 제시해 주고 이것이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했기 때문에 규범정보를 독립변인으로 취급하였다.

여론이 일종의 규범으로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여론정보도 어느 집단의 여론이나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시민이 서울시장을 뿔는데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다른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즉, 외집단보다 내집단, 문제 비관련 집단보다 문제 관련 집단의 여론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나은영, 1992, 1994 참조).

이론적으로는 “내집단 규범에의 동조” 효과를 강조한 자기범주화(self-categorization) 이론이 본 논문과 맥락을 같이 한다(Turner 등, 1987). 자기범주화 이론의 뿌리는 Tajfel과 Turner(1986)의 사회적 정체감(social identity) 이론으로, 이 이론의 기본 가정은 자기가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인 쪽으로 차이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싶어한다는 것이다(Tajfel & Turner, 1986, p.16). 예를 들어, 좋은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자기가 일반인들과는 다르

며, 단순히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반인보다 더 낫다(better)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대학생들은 일반인의 여론(사회적 지지)보다 대학생 내집단의 여론에 의해 더 많은 태도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자기범주화 이론에 따르면 또한 내집단 규범 쪽으로 극화된(polarized) 태도변화가 “내집단 규범의 극화된 지각” 때문에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즉, 자기가 속한 내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되는 상황에서는 내집단 규범을 실제보다 더 극화된 쪽으로 지각하고, 그 극화된 내집단 규범 쪽으로 동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태도극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집단 규범이 실제보다 더 극화되어 지각되는지도 추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여론정보에 의한 태도변화 과정을 자기범주화 이론의 틀 속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여론정보에 의한 태도변화를 사회심리학적 용어로 “사회적 지지”의 효과라고 볼 때, 그 중에서도 특히 내집단의 사회적 지지가 일반인 집단의 사회적 지지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둘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여론정보가 지지하는 쪽으로의 태도변화가 관찰될 것이다. 즉, 어떤 태도문항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여론정보는 그 문항에 찬성하는 쪽으로,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여론정보는 그 문항에 반대하는 쪽으로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킬 것이다.
2. 일반인 집단에 관한 여론보다 대학생 내집단에 관한 여론이 대학생의 태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일반인 집단과의 비교조사라는 점 때문에 대학생 내집단의 태도규범(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배적인 의견)에 대한 지각이 실제 규범보다 더 극화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실험에서는 대학생 내집단과 일반인 집단 대상의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대학생들만을 조사하였다. 실험 1은 서울대생들, 실험 2는 전북대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두 실험의

여론정보 조건들은 같았으나 여론정보를 전혀 주지 않은 통제집단과의 비교는 실험 2에서만 있었다.

실험 1

실험 1의 목적은 먼저 내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다수/소수찬성 여론정보 조건에 따라 태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검증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생 내집단의 여론정보가 태도변화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내집단 여론을 실제보다 더 극화시켜 지각하는지도 알아 보자 하였다.

방법

피험자. 서울대학교 재학생 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피험자들은 1994년 3월 말에 사전조사 질문지를 완성했으며, 약 6주 후(5월 중순)에 사후조사 질문지를 완성했다. 질문지의 지시문에서 “본 설문지는 대학생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학생 및 일반인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힘으로써 대학생의 의견이 일반인의 것과 비교됨을 강조하였다.

문항 선정. 대학생과 관련된 태도문항들 중에서 문항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1) 대학생과 일반인 공히 소수만이 동의할만한 문항들, (2) 대학생들 다수와 일반인들 소수가 동의할만한 문항들, (3) 대학생들 소수와 일반인들 다수가 동의할만한 문항들, 그리고 (4) 대학생과 일반인 공히 다수가 동의할만한 문항들을 각각 2개씩 모두 8개의 태도문항들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한 문항들의 내용은 표1과 같았는데, 이 중 1번 문항은 문항들의 규칙성을 감추고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단순히 첨가한 문항이었으므로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분석시에는 9번 문항을 1번으로 취급하였다). 맨 마지막 두 문항(문항 10과 11)은 피험자들의 집단정체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첨가하였다.

1) 1994년에 심리측정 과목을 수강하던 서울대 심리학과 학생들이 실험의 일환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1. 실험에 이용된 태도문항들

1.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2. 대학의 질을 평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多/少)
3. 서울대생들은 이기적이다. (少/多)
4. 대학의 교수요원 확보가 시급하다. (多/多)
5. 남학생도 파마를 하는 것이 더 멋있다. (少/少)
6. 뭐니뭐니 해도 역시 서울대생들이 가장 우수하다. (多/少)
7. 서울대에 집중되고 있는 정부의 투자를 전국 각 대학에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 (少/多)
8. 대학의 구내식당 시설들이 대체로 미비하다. (多/多)
9. 치마 입은 여학생보다 청바지 입은 여학생이 더 예뻐 보인다. (少/少)
10. 나는 서울대를 사랑한다.
11. 내가 서울대생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주. 문항 2부터 9까지 괄호 안의 문자들 중 첫번째 것은 대학생들 중 상대적으로 동의가 예상되는 수준을, 두번째 것은 일반인들 중 상대적으로 동의가 예상되는 수준을 나타낸 것임. 예를 들어, (多/少)는 대학생들 다수와 일반인들 소수가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이라는 뜻임.

사전조사 질문지. 사전조사 질문지는 크게 2부로 나뉘어 있었다. 제1부에서는 피험자들이 표1의 문항들에 각각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1점(절대로 그렇지 않다)부터 20점(전적으로 그렇다)까지의 20점 척도 위에 응답하도록 했다. 20점 척도를 이용한 이유는 (1) 사후조사시에 사전조사 때의 응답을 기억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2) 짝수 척도를 이용함으로써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도 찬반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척도 제시에 앞서 “척도의 수치가 커질수록 그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한 것이며, 1점부터 10점까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11점부터 20점까지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가리킴을 강조하였다.

제2부에서는 앞서 물었던 문항들 중 1번부터 9번까지의 문항들에 대해 “서울대생 100명 중 몇 명 정도”가, 그리고 “일반인들 100명 중 몇 명 정도”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괄호 안에 적어 넣도록 했다. 제1부의 질문들은 태도변화점수 계산시 사전점수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가설 1과 2), 제2부의 질문들은 각 태도문항에 대해 피험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내집단 규범의 극화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었다(가설 3).

사후조사 질문지. 사후조사 질문지의 지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첨가된 것만 제외하고는 사전조사 때와 같았다:

좀 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문항마다 지금까지 조사해 온 결과를 참고로 덧붙였습니다. 귀하께서 그 결과 보고를 참고하시되, 척도에 표시하는 의견은 귀하 자신의 의견이어야 합니다.

사후조사 질문지에서는 표1의 문항들 중 1번부터 9번까지의 문항들 각각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하는지를 사전조사 때와 똑같은 20점 척도 위에 한번 더 응답하도록 했으나, 문항과 척도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첨가하였다:

참고로, 지금까지 이 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 서울대생의 35.1%, 일반인들의 31.3%가 이 문항에 동의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 정보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여론정보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제 구체적인 여론정보 조작 방법과 실험설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여론정보 조작 및 실험설계. 대학생 내집단 여론과 일반인 집단 여론이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

표 2. 조작된 여론정보의 유형과 내용

정보	여론정보의 유형		여론정보의 내용	
	내집단 여론	일반인 여론	내집단 지지율	일반인 지지율
a	소수찬성	소수찬성	31.5%	33.1%
b	다수찬성	소수찬성	82.3%	25.4%
c	소수찬성	다수찬성	31.3%	72.2%
d	다수찬성	다수찬성	84.1%	83.5%
e	소수찬성	소수찬성	24.3%	23.5%
f	다수찬성	소수찬성	71.2%	32.5%
g	소수찬성	다수찬성	23.2%	81.4%
h	다수찬성	다수찬성	72.4%	74.1%

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가설 2), 여론정보의 유형과 내용을 표2와 같은 4유형 8가지로 구분하여 조작했다.

표2의 여론정보 내용은 여론정보의 유형에 잘 들어맞으면서도 조작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배려하여 최대한으로 다양한 느낌을 주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조작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첨가한 1번 문항에는 9번 문항과 짝지워지는 정보유형과 같은 것을 짝지우되 소수점 전후 1자리의 수치를 맞바꾸어(즉, 31.5를 35.1로 바꾸어) 제시함으로써 여론정보가 더욱 다양하고 그럴듯해 보이도록 했다.

8개의 태도문항(표1의 문항 2부터 9까지)과 8가지

의 여론정보(표2의 8가지 정보)를 짝지운 방식은 표3과 같은 8×8 Latin Square 방식을 따랐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8가지 형태의 질문지를 만든 다음, 각 질문지 형태를 9명씩의 피험자들이 응답하도록 하여 모두 72명의 피험자들이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설계에서 여론정보는 피험자내 변인이 되며, 모든 여론정보들이 다양한 문항들과 고루 짝지워진 셈이다. 최종 실험설계는 간단한 2(내집단 소수 찬성 대 다수 찬성) x 2(일반인 소수 찬성 대 다수 찬성) 요인설계이며, 가장 중요한 종속변인은 사후조사 태도점수에서 사전조사 태도점수를 뺀 태도변화 점수이다. 추가적으로, 사전조사 질문지에서 산출될 수

표 3. 태도문항과 여론정보를 짝지운 방식

문항번호	질문지 형태(format)							
	A	B	C	D	E	F	G	H
9	a	h	g	f	e	d	c	b
2	b	a	h	g	f	e	d	c
3	c	b	a	h	g	f	e	d
4	d	c	b	a	h	g	f	e
5	e	d	c	b	a	h	g	f
6	f	e	d	c	b	a	h	g
7	g	f	e	d	c	b	a	h
8	h	g	f	e	d	c	b	a

있는 대학생 내집단의 실제 의견분포(실제 내집단 규범)와 피험자들이 추측한 지각된 내집단 규범을 비교하여 내집단 규범의 지각이 극화되는지도 살펴 볼 수 있다.

결과 및 논의

여론정보의 유형별 태도변화 점수. 먼저, 사후조사 태도점수에서 사전조사 태도점수를 뺀으로써 72명 피험자들의 문항별 태도변화 점수를 구했다. 그 다음, 각 피험자마다 같은 정보와 짝지워진 두 문항씩의 태도변화 점수들을 평균하여 여론정보 조건별 태도 변화량의 원점수로 삼았다. 그 이유는 같은 정보와 짝지워진 두 문항의 태도변화 점수를 따로따로 원점수로 삼을 경우 한 피험자가 두 개씩의 태도변화 점수를 내게 되어 종속변인에 기여한 한 쌍씩의 점수들이 상관될 것이기 때문이다. 태도변화 점수가 +인 경우 그 의미는 태도가 해당 문항에 찬성하는 쪽으로 변했다는 것이고, 태도변화 점수가 -인 경우 그 의미는 태도가 해당 문항에 반대하는 쪽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한 태도변화 점수의 평균치를 여론정보 유형별로 제시해 보면 표4와 같다. 표4의 오른쪽 끝열에 각 여론정보 조건의 태도변화 점수가 0과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t검정한 결과가 나와 있다.

표4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여론정보들이 태도변화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첫번째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특히 유의한 결과를 살펴 보면, (1) 비록 일반인 다수

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대학생 내집단 중 소수만이 찬성하는 여론정보 조건(c와 g), 즉 내집단 다수가 반대하는 여론 속에서는 해당문항에 반대하는 쪽으로 태도가 변하며, (2) 대학생 내집단과 일반인 공히 다수가 찬성하는 여론에 접하면 해당 문항에 대한 태도가 찬성 쪽으로 많이 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집단 여론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표4의 결과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 2(내집단 소수찬성 대 다수찬성)×2(일반인 소수찬성 대 다수찬성)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내집단 여론의 효과만이 유의하게 나왔다, $F(1, 142)=16.37, p<.001$. 즉, 내집단 소수가 찬성(다수가 반대)하는 조건에서는 해당문항에 반대하는 쪽으로($M=-0.69$), 내집단 다수가 찬성(소수가 반대)하는 조건에서는 해당 문항에 찬성하는 쪽으로($M=0.94$) 태도가 변했으며 그 차이가 유의했다. 이 결과는 대학생 내집단의 여론정보가 일반인 집단의 여론보다 대학생의 태도변화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본 연구의 두번째 가설을 확실하게 지지해 주는 것이다.

실제 내집단규범과 지각된 내집단규범 간의 차이. 본 연구의 세번째 가설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일반인과 비교될 때 대학생 내집단의 규범을 실제보다 더 극화시켜 지각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먼저 각 문항에 대한 피험자들의 실제 의견분포(찬성률)를 계산하였다. 지각된 규범 측정치가 각 문항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되는 내집단 또는 일반인의 백분율(100명 중 몇 명)이었기 때문에, 실제 의견분포도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문항마다 72명의 피험자들

표 4. 여론정보 유형별 태도변화 점수 (서울대생)

정보	여론정보의 유형		n	태도변화 점수	t
	내집단 여론	일반인 여론			
a e	소수찬성	소수찬성	72	-0.64	-1.68
b f	다수찬성	소수찬성	72	0.81	1.78
c g	소수찬성	다수찬성	72	-0.74	-2.16 *
d h	다수찬성	다수찬성	72	1.08	2.75 **

· $p<.10$, * $p<.05$, ** $p<.01$.

표 5. 실제 내집단규범과 지각된 내집단규범 간의 차이 (서울대생)

문항	n	실제 내집단규범	지각된 내집단규범	차이 ^a	t
9	72	23.6% 찬성 ^b	46.8% 찬성 (39.9%) ^c	-23.2	-10.99***
2	72	81.9% 찬성	67.1% 찬성 (55.1%)	-14.8	-4.81**
3	72	66.7% 찬성	60.3% 찬성 (74.0%)	-6.4	-2.52*
4	72	93.1% 찬성	82.9% 찬성 (64.5%)	-10.2	-5.74***
5	72	20.8% 찬성	35.8% 찬성 (37.5%)	-15.0	-7.17***
6	72	48.6% 찬성	60.5% 찬성 (74.1%)	11.9	5.19***
7	72	40.3% 찬성	39.1% 찬성 (57.8%)	1.2	0.50
8	72	91.7% 찬성	86.6% 찬성 (53.9%)	-5.1	-3.34**

주. ^a실제 내집단규범(찬성률)과 지각된 내집단규범 간의 차이. 지각된 규범이 실제 규범보다 더 극단적일 경우 +값을, 그 반대일 경우 -값을 갖는 방향으로 계산함. ^b고딕 이탤릭체 수치는 실제 대 지각된 내집단 규범 비교에서 더 극단적인 쪽임을 나타냄. ^c괄호 안의 수치는 서울대생이 지각한 일반인 집단의 찬성률(규범)을 나타냄.

* $p < .05$, ** $p < .01$, *** $p < .001$.

가운데 몇 %가 11점 이상에 응답했는지(즉, 동의했는지)를 계산하여 이것을 실제 내집단 규범으로 간주했다. 표5에는 각 문항별로 지각된 내집단 및 일반인 집단의 규범과 실제 내집단 규범(실제 일반인 집단의 규범은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산출치를 제시하고, 실제 내집단규범과 지각된 내집단규범 간의 차이를 구한 다음, 이 차이가 0과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를 t검정 결과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표5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대학생 피험자들의 내집단규범에 대한 지각이 실제 내집단규범보다 더 극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문항 6과 문항 7 이외의 모든 문항에서 오히려 실제 찬성률(규범)이 지각된 찬성률보다 더 극단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Turner 등(1987)의 자기범주화 이론에 근거하여 설정했던 본 연구의 가설 3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대학생 피험자들의 실제 내집단 의견이 자기들이 생각(지각)하는 것보다 더 극단적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내집단 규범에 관한 지각이 실제 개인의

의견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상관은 있되 실제 의견보다 약간 더 온화한 쪽으로 내집단의 의견을 지각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문항별로 피험자들의 실제 의견(사전 조사 점수)과 내집단 의견에 대한 지각(서울대생 100명 중 몇 명이 동의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 간의 상관계수를 구해 보았다. 이때 일반인 의견에 대한 지각(일반인 100명 중 몇 명이 동의할 것인지)과의 상관계수도 함께 살펴 보았다. 그 결과가 표6에 나와 있다.

표6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피험자들 자신의 실제 의견은 내집단 의견분포(규범)에 대한 지각과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어떤 문항에 자기가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내집단 구성원들 중 더 많은 수가 그 문항에 동의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표5의 결과와 결부시켜 보면, 대학생 피험자들 개인의 의견이 내집단 의견분포에 대한 지각과 강한 상관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범

표 6. 피험자들의 실제 의견과 지각된 내집단 및 일반인 의견 간의 상관계수 (서울대생)

문항	지각된 내집단 의견과의 상관	지각된 일반인 의견과의 상관
9	0.1160	-0.0269
2	0.4688***	0.1809
3	0.5904***	0.1288
4	0.5925***	0.2714*
5	0.3917***	0.1734
6	0.5896***	0.2221
7	0.5677***	0.3714**
8	0.4093***	0.0907

* $p < .05$, ** $p < .01$, *** $p < .001$.

주화 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실제보다 더 극단적인 쪽으로 내집단 규범을 지각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인 집단의 의견분포에 대한 지각은 8문항 중 두 문항에서만 피험자의 의견 강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실험 1의 결과를 요약하면, 여론정보가 태도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1과 특히 대학생 내집단의 여론이 일반인의 여론보다 대학생의 태도변화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으나, 일반인과 비교된다는 인식으로 인해 내집단 규범을 실제보다 더 극단적으로 지각할 것이라는 세번째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다음에는 이런 결과들이 서울대생에만 한정되는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대학생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결과인지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해 보기 위해 전북대생들을 대상으로 두번째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2

실험 2는 실험 1에서 얻은 결과에 확신을 갖기 위해 실시된 일종의 반복검증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두 실험 간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²⁾ 먼저, 실험

2) 실험 2에 무정보 통제조건을 첨가한 것과 다른 범주의 피험자를 사용한 것만 제외하면 두 실험의 설계에 큰 차이가 없는 반복검증 실험이지만, 실험 1이

2에서는 여론정보를 전혀 받지 않은 통제집단을 첨가함으로써 여론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둘째로 실험 1과는 다른 범주의 피험자집단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두 실험의 기본적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같았다.

방 법

피험자. 전북대생 160명이 실험 2에 참여하였다.³⁾ 이들은 모두 1995년 3월 초에 사전조사 질문지를 완성했으며, 약 6주 후(5월 중순)에 사후조사 질문지를 완성했다. 사후조사시 128명은 실험집단에, 32명은 통제집단에 할당되었다.

질문지 및 실험설계. 질문지의 내용과 형식은 실험 1의 것과 똑같았으나, 실험 1의 피험자였던 서울대생들은 한국 전체에서 특수한 집단으로 간주되는데 비해 실험 2의 피험자였던 전북대생들은 전라북도 내에서 특수한 집단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험 1의 “일반인”이란 말 대신 실험 2에서는 “전라북도내 일반인”이란 말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실험에서 각 집단의 피험자들이 느끼는 실험 상황이 최대한 유사해지도록 배려했다. 질문지의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여론정보의 내용도 실험 1과 같았으며, 여론정보를 문항과 짝지운 방식도 실험 1과 같았다.

사전조사에 참가했던 160명의 피험자 가운데 32명은 사후조사시 무정보 통제집단에 할당되어 여론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문항들에 다시 한 번 응답하도록 했으며, 실험집단의 피험자 128명 중 각 16명씩이(실험 1의 표3과 같은 방식으로 만든) 8개 질문지 형태 중 한 가지씩을 완성하도록 했다. 실험 2에서도 최종 실험설계는 역시 2(내집단 소수찬성 대 다수찬성)×2(일반인 소수찬성 대 다수찬성) 요인설계였으

실험 2의 예비실험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별개의 실험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편의상 실험 1과 실험 2라는 명칭을 따로 사용하기로 한다.

3) 1995년에 심리조사방법과 심리학연습 과목을 수강하던 전북대 심리학과 학생들이 실습의 일환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며, 가장 중요한 종속변인은 사후조사 태도점수에서 사전조사 태도점수를 뺀 태도변화 점수였다. 이에 더하여, 사전조사 질문지에서 산출될 수 있는 대학생 내집단의 실제 의견분포(실제 내집단 규범)와 피험자들이 추측한 지각된 내집단 규범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내집단 규범의 지각이 극화되는지도 한번 더 살펴 볼 수 있었다.

결과 및 논의

여론정보의 유형별 태도변화 점수. 실험 2에서도 먼저 각 문항마다 사후조사 태도점수에서 사전조사 태도점수를 뺀으로써 160명 피험자들의 문항별 태도변화 점수를 구했다. 그 다음, 각 피험자마다 같은 정보와 짝지워진 두 문항씩의 태도변화 점수들을 평균하여 여론정보 조건별 태도변화량의 원점수로 삼았다. 태도변화 점수가 +인 경우 그 의미는 태도가 해당 문항에 찬성하는 쪽으로 변했다는 것이고, 태도변화 점수가 -인 경우 그 의미는 태도가 해당 문항에 반대하는 쪽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태도변화 점수의 평균치를 여론정보 유형별로 제시해 보면 표7과 같다. 표7의 오른쪽 끝열에 각 여론정보 조건의 태도변화 점수가 0과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t검정한 결과가 나와 있다.

표7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론정보들이 태도변화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실험 2에서 새로 첨가한 조건이

었던 무정보 집단, 즉 여론정보를 주지 않은 통제집단의 태도변화량은 예상했던 대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는 태도변화에 미치는 여론정보의 효과에 더욱 확신을 갖게 해 준다. 이로써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확실히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특히 유의한 결과를 살펴 보면, (1) 비록 일반인 소수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대학생 내집단 중 다수가 찬성하는 여론정보 조건(b와 f)에서는 해당문항에 찬성하는 쪽으로 태도가 많이 변하며, (2) 대학생 내집단과 일반인 공히 다수가 찬성하는 여론에 접하면 해당 문항에 대한 태도가 찬성 쪽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내집단 여론의 상대적 중요성이 드러나, 본 연구의 가설 2가 지지되고 있다.

이 결과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기 위해 2(내집단 소수찬성 대 다수찬성)×2(일반인 소수찬성 대 다수찬성)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집단 여론의 효과만이 유의하게 나왔다. $F(1, 254)=11.07, p<.01$. 즉, 내집단 소수가 찬성(다수가 반대)하는 조건에서는 해당문항에 반대하는 쪽으로($M=-0.46$), 내집단 다수가 찬성(소수가 반대)하는 조건에서는 해당문항에 찬성하는 쪽으로($M=0.85$) 태도가 변했으며 그 차이가 유의했다. 이는 대학생 내집단의 여론정보가 일반인 집단의 여론보다 태도변화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에 확신을 갖게 해 준다.

실제 내집단규범과 지각된 내집단규범 간의 차이.

표 7. 여론정보 유형별 태도변화 점수 (전복대상)

정보	여론정보의 유형		n	태도변화 점수	t
	내집단 여론	일반인 여론			
a e	소수찬성	소수찬성	128	-0.22	-0.61
b f	다수찬성	소수찬성	128	0.88	2.40 **
c g	소수찬성	다수찬성	128	-0.69	-1.90
d h	다수찬성	다수찬성	128	0.82	1.97 *
o	무정보		32	-0.13	0.33

· $p<.10$, * $p<.05$, ** $p<.02$.

실험 2에서도 본 연구의 세번째 가설, 즉 대학생들이 일반인과 비교될 때 대학생 내집단의 규범을 실제보다 더 극화시켜 지각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먼저 각 문항에 대한 피험자들의 실제 의견분포(찬성률)를 알기 위해, 실험 1에서처럼 사전조사의 각 문항마다 160명의 피험자들 가운데 몇 %가 11점 이상에 응답했는지(즉, 동의했는지)를 계산하여 실제 내집단 규범으로 삼았다. 지각된 내집단 규범은 사전조사의 제2부 질문에서 피험자들이 각 문항에 응답한 내집단 찬성률 추정치(전북대생 100명 중 몇 명 정도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였다. 표8에는 각 문항별로 지각된 내집단 및 일반인 집단의 규범과 실제 내집단 규범(실제 일반인 집단의 규범은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산출치를 제시하고, 실제 내집단규범과 지각된 내집단규범 간의 차이를 구한 다음, 이 차이가 0과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를 t 검증한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표8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로 대학생 피험자들의 내집단규범에 대한 지각이 실제 내집단규범보다 더 극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두 개의 문항(문항 6과 7)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실제 찬성률(규범)이 지각된 찬성률보다 더 극단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Turner 등(1987)의 자기범주화 이론에 근거하여 설정했던 본 연구의 가설 3을 부정한다. 즉, 대학생 피험자들의 실제 의견이 자기들이 지각하는 것보다 더 극단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내집단 규범에 관한 지각이 개인의 실제 의견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상관은 있되 실제 의견보다 약간 더 온화한 쪽으로 내집단의 의견을 지각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문항별로 피험자들의 실제 의견(사전조사 점수)과 내집단 의견에 대한 지각(전북대생 100명 중 몇 명이 동의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 간의 상관계수를 구해 보았다. 이때 일반인 의견에 대한 지각(전라북도내 일반인 100명 중 몇 명이 동의할 것인지)과의 상관계수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

표 8. 실제 내집단규범과 지각된 내집단규범 간의 차이 (전북대생)

문항	n	실제 내집단규범	지각된 내집단규범	차이 ^a	t
9	160	39.4% 찬성 ^b	51.7% 찬성 (47.9%) ^c	-12.3	-7.64***
2	160	55.0% 찬성	54.5% 찬성 (53.8%)	-0.5	-0.29
3	160	30.0% 찬성	40.5% 찬성 (42.4%)	-10.5	-5.30***
4	160	86.9% 찬성	76.5% 찬성 (55.5%)	-10.4	-6.80***
5	160	19.4% 찬성	33.1% 찬성 (20.6%)	-13.7	-8.18***
6	160	58.8% 찬성	64.4% 찬성 (66.3%)	5.6	3.09**
7	160	41.3% 찬성	36.5% 찬성 (54.3%)	4.8	2.72**
8	160	85.6% 찬성	78.4% 찬성 (47.3%)	-7.2	-5.08***

주. ^a실제 내집단규범(찬성률)과 지각된 내집단규범 간의 차이. 지각된 규범이 실제 규범보다 더 극단적일 경우 +값을, 그 반대일 경우 -값을 갖는 방향으로 계산함. ^b고딕 이탤릭체 수치는 실제 대 지각된 내집단 규범 비교에서 더 극단적인 쪽임을 나타냄. ^c괄호 안의 수치는 전북대생이 지각한 전라북도내 일반인 집단의 찬성률(규범)을 나타냄.

* $p < .05$, ** $p < .01$, *** $p < .001$.

표 9. 피험자들의 실제 의견과 지각된 내집단 및 일반인 의견 간의 상관계수 (전북대생)

문항	지각된 내집단 의견과의 상관	지각된 일반인 의견과의 상관
9	0.2802***	0.0948
2	0.2334**	0.1670*
3	0.5637***	0.3762***
4	0.7119***	0.4214***
5	0.6073***	0.3547***
6	0.5371***	0.4539***
7	0.2984***	0.1919*
8	0.6682***	0.2533**

* $p < .05$, ** $p < .01$, *** $p < .001$.

결과가 표9에 나와 있다.

표9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피험자들 자신의 실제 의견은 내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의견분포(규범)에 대한 지각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내집단 규범의 지각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실험 1에서처럼 어떤 문항에 자기가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내집단 구성원들 중 더 많은 수가 그 문항에 동의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표8의 결과와 결부시켜 보면, 대학생 피험자들 개인의 의견이 내집단 의견분포에 대한 지각과 강한 상관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범주화 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실제보다 더 극단적인 쪽으로 내집단 규범을 지각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대부분 실험 1의 결과들과 잘 일치하나, 피험자들의 실제 의견과 지각된 일반인 의견과의 상관은 전북대생의 경우가 대체로 더 높았다.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먼저 (1) 단순한 여론정보만으로도 여론정보가 지지하는 쪽으로의 태도변화가 관찰될 것인지, 즉 어떤 태도문항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여론정보는 그 문항에 찬성하는 쪽으로,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여론정보는 그 문항에 반대하는 쪽으로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킬 것

인지; 둘째로 (2) 일반인 집단에 관한 여론보다 대학생 내집단에 관한 여론이 대학생의 태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끝으로 (3) 일반인 집단과의 비교조사는 점 때문에 대학생 내집단의 태도규범(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배적인 의견)에 대한 지각이 실제 규범보다 더 극화될 것인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앞의 두 가설은 지지되었으나 세번째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두 실험의 주요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해 놓은 것이 그림1과 그림2에 차례로 나와 있다. 그림1과 그림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먼저 두 실험의 결과가 아주 잘 일치한다는 점이다. 서울대생을 피험자로 한 실험 1과 전북대생을 피험자로 한 실험 2의 결과가 거의 일치한다는 이 사실은 본 연구의 결과가 어느 특수한 집단에만 한정되는 결과가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얻은 여론정보에 의한 태도변화 효과는 일반화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로, 실험 1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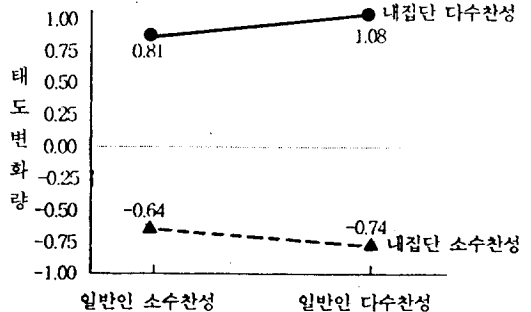


그림 1. 서울대생 내집단과 일반인의 여론정보(찬성률)에 따른 서울대생의 태도변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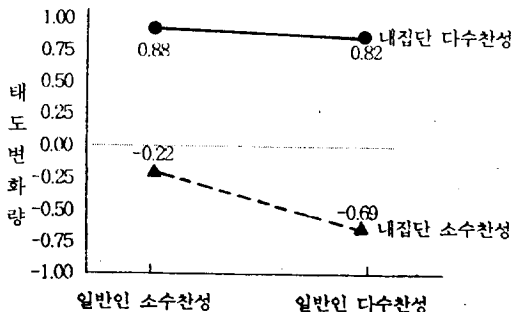


그림 2. 전북대생 내집단과 전라북도내 일반인의 여론정보(찬성률)에 따른 전북대생의 태도변화량.

피험자였던 서울대생과 실험 2의 피험자였던 전북대생의 사회적 정체감의 강도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생($N=72$)의 경우는 20점 척도에서 정체감의 강도가 평균 13.87(나는 서울대를 사랑한다)과 13.44(내가 서울대생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로, 전북대생($N=160$)의 경우는 평균 13.89(나는 전북대를 사랑한다)와 13.11(내가 전북대생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울대생이 일반인에 비교하여, 혹은 전북대생이 전라북도내 일반인에 비교하여, 중간 이상의 집단정체감을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두 실험 결과를 조심스럽게 일반화시켜 본다면, 최소한 타집단과 비교하여 중간 이상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집단의 경우는 내집단의 여론 쪽으로 태도변화가 쉽게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둘째로 그림1과 그림2에서 공히 눈에 두드러지는 점은 내집단 여론정보의 효과가 아주 크다는 것이다. 즉, 같은 사회적 지지 정보라도 내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보가 태도변화에 훨씬 더 큰 효과를 지닐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집단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면 일반인 찬성률에 관계없이 찬성 쪽으로, 내집단 소수가 찬성(다수가 반대)하는 의견이면 일반인 찬성률에 관계없이 반대 쪽으로 그 의견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반인 다수가 찬성 하더라도 내집단 소수만이 찬성(내집단 다수가 반대)하는 의견의 경우 그 내집단의 의견(반대) 쪽으로 많은 태도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두 그림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림2의 전북대생 자료에서 내집단과 일반인 다수가 찬성하는 최대지지 조건($M=0.82$)보다 내집단 다수와 일반인 소수가 찬성하는 차별적 지지 조건($M=0.88$)이 약간 더 큰 사회적 지지 효과(내집단 의견 쪽으로의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나은영(1992)의 이전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나은영(1992)은 미국 Yale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내집단 80%, 외집단 80% 지지” 조건보다 “내집단 80%, 외집단 20% 지지”라는 차별적 지지 조건이 더 큰 사회적 지지 효과(집단정체와 관련된 신

념이 공격받을 때 그 공격에 대한 저항)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내집단 여론이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보다 중요하다는 이런 결과가 우리나라의 집단주의적인 문화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지만, 나은영(1992)의 피험자는 미국 학생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문화적 설명은 기각된다. 즉,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반 집단보다 내집단의 여론이 태도나 신념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다만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로 인해 그 효과가 다양한 영역에서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른 태도문항들이 대부분 대학생과 관련된 문항들이었기 때문에 대학생 내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참조집단으로 더 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문항의 내용을 두 부류로(예컨대, 대학생 관심문항과 일반인 관심문항으로) 나누어, 이 두 부류의 문항에 따라 내집단 여론정보의 효과가 달라 나오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내집단 여론정보(찬성률)의 효과가 크게 나온 것은 내집단 정보원(source)에 의한 설득메시지가 외집단 정보원에 의한 설득메시지보다 더 큰 설득효과를 지닌다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예: Mackie, 1986; Mackie & Cooper, 1984). 이런 연구들은 모두 자기범주화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내집단 규범의 극화된 지각과 관련된 세번째 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것은 자기범주화 이론에 위배된다. 자기범주화 이론이 지지되려면 실제 내집단 규범보다 지각된 내집단 규범이 더 극화되어야 하는데, 실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실제 규범보다 지각된 규범이 덜 극화되었다. 그 이유로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에서 실제 규범을 측정한 척도(20점 연속척도로 측정하여 찬반 양분)와 지각된 규범을 측정한 척도(찬성률 %로 직접 측정)가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것은 후속 연구에서 측정 척도를 일치시켜 확인해 볼 수 있겠으나, 본 연구의 두 실험 모두에서 일관성있게 실제 규범이 더 극화되어 나왔다는 것은

자기범주화 이론에서 숙고해 보아야 할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피험자들처럼 내집단에 대한 자부심이 비교적 높은 사람들의 경우, 자기가 그 집단에서 더 바람직한 구성원이라고(즉, 자기가 평균보다 더 극단적인 쪽의 내집단 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사람들이 단순히 여론정보(특히 내집단의 여론정보)에 접하기만 해도 쉽게 태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종종 무척 임하게 행해지고 있는 유행성 여론조사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이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보고되더라도 이것이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보고될 때 그 효과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대중매체의 효과가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 등의 효과 때문에 상쇄된다 하더라도(나은영, 1995; McGuire, 1986),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기 전에 먼저 그 조사 자체의 신뢰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론정보에 의한 태도변화가 몇 달 후에도 지속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론정보가 본 연구에서처럼 일시적으로라도 태도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특히 선거 직전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내집단의 규범이나 여론에(비록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쉽게 따라가는 사람들의 경향을 생각할 때, 규범의 오지각(misperception)을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여론을 전달하지 않도록 조사기관이나 대중매체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참 고 문 헌

나은영 (1992).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차별적 신념 지 지율이 개인의 집단정체 관련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43-61.

나은영 (1994). 태도 및 태도변화 연구의 최근 동향: 1985-1994.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2), 3-33.

나은영 (1995). 미디어 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 *한국방송학회 봄철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pp. 3-33.

이순애 (1984).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의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Asch, S. E. (1951). Effects of group pressure upon the modification and distortion of judgments. In H. Guetzkow (Ed.), *Group leadership and men* (pp. 177-190). Pittsburg, PA: Carnegie Press.

Bryce, J. (1981). The nature of public opinion. In M. Janowitz & P. Hirsch (Eds.), *Reader in public opinion and mass communication* (pp. 3-9). New York: The Free Press.

Doob, L. W. (1966). *Public opinion and propaganda*.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Mackie, D. M. (1986). Social identification effect in group pola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720-728.

Mackie, D. M. & Cooper, J. (1984). Attitude polarization: The effects of group member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575-586.

McGuire, W. J. (1986). The myth of massive media impact: Savagings and salvagings. In G. Comstock (Ed.), *Public communication and behavior* (Vol. 1, pp. 173-257). San Diego, CA: Academic Press.

Miller, D. T., & McFarland, C. (1991). When social comparison goes awry: The case of pluralistic ignorance. In J. Suls & T. Wills (Eds.), *Social comparis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pp. 287-313). Hillsdale, NJ: Erlbaum.

Noelle-Neumann, E. (1984). *The spiral of sile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owell, N. J. (1951). *Anatomy of public opin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Price, V. (1989). Social identification and public opinion: Effects of communicating group conflict. *Public Opinion Quarterly*, 53(2), 197-224.
- Prentice, D. A., & Miller, D. T. (1993). Pluralistic ignorance and alcohol use on campus: Some consequences of misperceiving the social nor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2), 243-256.
- Ross, L. (1977). The intuitive psychologist and his shortcomings: Distortions in the attribution proces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0, pp. 173-220), New York: Academic Press.
- Schanck, R. L. (1932). A study of community and its group institutions conceived of as behavior of individuals. *Psychological Monographs*, 43(2), 1-133.
- Shamir, J. (1995). Information cues and indicators of the climate of opinion: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in the Intifada.. *Communication Research*, 22(1), 24-53.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7-24). Chicago, IL: Nelson-Hall.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New York: Blackwell.

Attitude Change by Public Opinion: A Comparison Between College Students' and General Public's Social Support Effects

Eun-Yeong Na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test three related hypotheses: (1) that simple information on public opinion will change people's attitudes, (2) that information on college student ingroup's social support will have greater effects on the students' attitude change than information on general public's support, and (3) that perceived ingroup norm will be more polarized than actual ingroup norm because of the expected comparison of the students with the general public.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the kinds of information on public opinion: (1) ingroup minority/general minority support, (2) ingroup majority/general minority support, (3) ingroup minority/general majority support, or (4) ingroup majority/general majority support conditions. The primary dependent variable was attitude change scores; furthermore, the difference between perceived and actual ingroup norms was additionally analyzed in terms of the degree of polarization. As a result, the first two of the above three hypotheses were supported by data; but the third hypothesis based on self-categorization theory (Turner et al., 1987) was rejected. Thus, it can be said that although perceived ingroup norm was not polarized, external information on public opinion (especially on ingroup's dominant opinion) in fact changed students' attitudes in the direction of expressed ingroup opinion.